

# “시민과 도약하는 완산구 만들 것”

### 엄익준 완산구청장, 소통·복지·생태·경제·안전 등 하반기 5대 구정 운영 방향 제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가 올 하반기에도 전주의 대변역을 앞당기고, 완산구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엄익준 구청장은 27일 열린 완산구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뢰와 책임으로 다가가는 ‘공감 소통’ △알차고 따뜻한 희망가득 ‘맞춤복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일상 속 활력넘치는 ‘생활경제’ △춤추는 예방으로 실현하는 ‘시민안전’의 2023년도 하반기 5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구는 시민들의 행복을 찾아 키우고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찾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의 날 강화 △동장 중심 ‘동네 한바퀴 순찰제’ 지속 운영 △동별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공감소통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인 하천 산책로 및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안전 관리에 힘



엄익준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 5대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쓰고, 재해위험목 제거 및 수형 불량목 교체 등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 20억 원 규모의 노후도

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를 빈틈없이 예방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상반기 ‘신뢰

와 책임으로 다가가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구·동 현장 행정(365건) △생활민원 자동처리반(72회) 운영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추진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서식 작성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행정’을 위해 △노후도로 재포장 및 인도 정비(50개소) △교량 유지(71개)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101개소) 집행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공원 내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물 정비(300건) △가로수 정비(40그루) △공사장 점검 및 생활민원 처리(78개소)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했다.

엄익준 구청장은 “2023년 하반기에도 항상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향하는 전주의 대변역을 완산구가 앞장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완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제3회 여산문화상 수상자 선정

### 여산장학재단, 유대준 시인·김사는 수필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산장학재단(이사장 국중하)에서는 지난 22일 전주에서 여산문화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제3회 여산문화상 수상자로 유대준 시인과 김사는 수필가를 선정했다.



유대준 시인



김사는 수필가

유대준 시인은 1993년 문학세계에 시 ‘휴경기’ 연작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전북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시집으로 ‘눈 바로 뜨고 게는 옆으로 간다’, 등이 있다. 유대준 시인은 “작가로서 다시 가다듬고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사는 수필가는 전북원음방송 PD로서 2000년 한국문인에서 ‘길 없는 길’ 등 두 편의 수필이 당선된

수필가다. 가요컬럼 ‘뽕짜이 내게로 온 날’, 등이 있다. 김사는 수필가는 “문학가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표했다.

한편, 여산문화상은 전북도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본 재단은 6.25 참전 간호장교였던 故 조근임 씨에게 출연한 2억 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재단의 규모는 19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조미애 심사위원장은 “올해 두 분에게 상을 드릴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전북문화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유대준 시인과 김사는 수필가의 문학적 업적과 헌신적인 문단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 초과 기부혐의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보고와 관련,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한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천만원), 연간 2천만원까지임을 강조하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월부터 덕진보건소로 이전

전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오는 8월부터는 기존 화산체육관 대신 덕진보건소에서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PCR 무료 검사를 시행해온 화산 선별진료소를 오는 8월 1일부터는 덕진보건소 1층으로 이전해 전주시 선별진료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선별진료소 운영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화산체육관의 시

설을 다시 개방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전주시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덕진보건소(우이길 20) 1층에서 운영되며, 무료 대상자들에게 PCR검사를 진행한다. 무료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고령자와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등으로,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가 격리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양성확인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호자가 대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063-281-6341~63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완산구, 노후 도로·인도 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되고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올 하반기 노후화 정도를 기준으로 평화동 난전들로 인도 개설과 효자동 포스코차 인도 정비, 서신동 서신성당 일원 등 노후 도로와 인도, 도로시설물 등 13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올 하반기 노후도로 정비사업 예상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구는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정비를 시행하기로 했

다. 특히 구는 이달 중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상태가 취약해진 만큼, 폭우로 인한 포트홀과 볼라드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는 오는 8월까지 노후도로 정비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공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효자동~마전교 언더패스

△우림교~이동교 언더패스 △신덕공원 및 서곡 인근 △색장동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부근 △평화동 푸른마을 주공아파트~완산역 △세대로 서곡공원 등 30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왔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폭염 정마가 이어진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산구 가용자원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노후도로, 인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흥겨운 음악축제 ‘풍성’

### 제7회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개최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여름바람 시민과 관광객의 무더위를 시원한 음악으로 식혀줄 흥겨운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사이 ‘제7회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와 ‘2023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등 다채로운 음악축제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먼저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조직위원장 조희원)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일간 전주고 세계평화의전당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전주시민들에게 정통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에서는 최은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첫날 공연에는 모차르트와 브람스, 멘델스존의 선율이 울려 퍼졌고,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는 각각 △젊음의 열정 △또 다른 스타일 △동유럽의 목소리를 주제로 우리 귀

에 익숙한 클래식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정통 록부터 EDM, 힙합, K-POP, 블루스, 인디 밴드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2023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2023 JUMF)’이 펼쳐진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한 이번 2023 JUMF에서는 첫날 세계적인 인기콘텐츠인 K-POP 공연을 시작으로, 록·헤비메탈·힙합·어쿠스틱한 발라드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출연진은 △크라이넛 △자우림 △로다운30 △로맨틱펀치 △10cm 등 외에도 다수 출연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전주한벽문화관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에서 2023년 한옥자유허용 야간상설공연으로 댄스컬 ‘전주비밀밥: 그 맛의 시작’이 펼쳐지고,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8시부터 전주한벽문화관 전통혼례청에서 2023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가 무대에 오른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